



# ‘손’ 쓸수 없다면 ‘원톱’은 이동국?

2018 러 월드컵 최종예선 내일 오후 9시 이란전

손흥민 수술 팔 불편 호소... 무릎통증 황희찬도 장담못해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파주 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축구대표팀 소집 훈련에서 신태용 감독이 손흥민(왼쪽)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의 명운이 걸린 이란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31일 오후 9시, 서울 월드컵경기장)에 축구대표팀의 주축인 황희찬(잘츠부르크)과 손흥민(도르트문트)을 빼고 베스트 11을 짜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팀 관계자는 29일 “황희찬 선수가 부상한 무릎 인대에 통증이 남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수술을 받은 팔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기 당일까지 자가 회복이 가능하고, 손흥민 선수도 선발 출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표팀 의무팀이 두 선수에 대한 상황을 신태용 감독에게 보고를 드린 뒤, 다른 후보를 보내면서 최단 기간 두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 경기 직전 출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시즌 초반인 데도 7골을 넣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며 ‘신태용호 1기’ 26명 중 이란전 골문을 열 골키퍼로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소속팀 슈팅훈련 오른쪽 무릎 인대가 안쪽으로 꺾이는 부상으로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28일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무릎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내측 인대가 미세하게 파열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가 무릎 인대 통증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 경기에 투입하는 건 무리”라면서 “이란전에 뛰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흥민 역시 상태가 좋지 않다.

지난 6월 14일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때 오른쪽 팔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던 손흥민은 완전히 회복돼 지난 주말에는 소속팀 경기에 선발 출전할 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대표팀 합류 후 수술 받았던 팔 부분의 불편을 호소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서는 빠지고 대신 후반에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대표팀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경기 직전까지 지켜본 후 최종 신태용 감독이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위	국가	승점	승	무	패	득점	실점	골득실
1	이란	20	6	2	0	8	0	8
2	<b>대한민국</b>	<b>13</b>	<b>4</b>	<b>1</b>	<b>3</b>	<b>11</b>	<b>10</b>	<b>1</b>
3	우즈베키스탄	12	4	0	4	6	6	0
4	시리아	9	2	3	3	4	5	-1
5	카타르	7	2	1	5	6	10	-4
6	중국	6	1	3	4	5	9	-4

29일 “황희찬 선수가 부상한 무릎 인대에 통증이 남아 있고, 손흥민 선수도 수술을 받은 팔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경기 당일까지 자가 회복이 가능하고, 손흥민 선수도 선발 출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표팀 의무팀이 두 선수에 대한 상황을 신태용 감독에게 보고를 드린 뒤, 다른 후보를 보내면서 최단 기간 두 선수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 경기 직전 출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희찬은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시즌 초반인 데도 7골을 넣는 등 절정의 골 감각을 보이며 ‘신태용호 1기’ 26명 중 이란전 골문을 열 골키퍼로 기대를 받아왔다. 그러나 소속팀 슈팅훈련 오른쪽 무릎 인대가 안쪽으로 꺾이는 부상으로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28일 대표팀에 합류했지만 무릎 통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 내측 인대가 미세하게 파열됐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가 무릎 인대 통증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실전 경기에 투입하는 건 무리”라면서 “이란전에 뛰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흥민 역시 상태가 좋지 않다.

지난 6월 14일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 때 오른쪽 팔 골절을 당해 수술을 받았던 손흥민은 완전히 회복돼 지난 주말에는 소속팀 경기에 선발 출전할 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대표팀 합류 후 수술 받았던 팔 부분의 불편을 호소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손흥민은 선발 명단에서는 빠지고 대신 후반에 조커로 투입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진다.

대표팀 관계자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도 경기 직전까지 지켜본 후 최종 신태용 감독이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원 핵 기성용 빈자리 메워라” 구자철에 특명

신태용 감독 “대회 당일 베스트 11 공개”

‘두 선수의 나이 합계는 72세, A매치 성적은 합쳐서 154경기 출전에 37골.’ ‘신태용호 1기’에 승선한 베테랑 공격수 이동국(38·전북)과 염기훈(34·수원)이 이란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31일 오후 9시·서울월드컵경기장)에 선발 출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팀의 주축인 최전방 스트라이커 황희찬(잘츠부르크)과 불박이 왼쪽 측면 미드필더 손흥민(도르트문트)이 부상으로 이란전 선발출전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축구의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의 명운이 걸린 이란전을 앞둔 신태용 감독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황희찬이 담당했던 원톱 임무는 38세의 최고참 이동국에게 맡길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소집된 대표팀 선수 26명 중 공격수는 황희찬과 이동국, 김신욱(전북) 등 3명. 김신욱이 주로 조커로 후반에 투입

점을 고려하면 이동국이 먼저 출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동국은 ‘임시 주장’을 자처하며 분위기에 따라 활약을 해왔고, 불박이 가까운 나이에도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 녹슬지 않는 기량을 보여줬다. 신태용 감독이 경기 당일 베스트 11을 공개한다고 밝힌 가운데 황희찬과 비슷한 저돌적인 플레이를 구사하는 이근호(강원)가 깜짝 선발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대표팀의 왼쪽 날개를 책임졌던 손흥민의 대체자로는 ‘원톱 달인’ 염기훈이 첫 순으로 꼽힌다.

A매치 51경기에서 4골을 기록한 염기훈은 올해 K리그 클래식에 9도움 4골로 전성기 못지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염기훈은 손흥민이 이란전에 선발 출전하지 못하면 ‘박지성의 후계자’로 불렸던 김보경(가시와 레이슬) 등과 주전 경쟁을 해야 하지만 경험과 기량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현은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1회전에서 정현(47위)이 오라시오 세바오스(58위·아르헨티나)의 공을 여유있게 받아 치고 있다. /연합뉴스

## 정현 US오픈 2회전 진출

세계 15위 이너스와 대결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47위·삼성증권 후원)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US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040만 달러·약 565억원) 2회전에 진출했다. 첫 세트를 내준 정현은 2세트를 타이브레이크 끝에 따내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고 이후 3, 4세트를 가져오며 3시간 30분 간 접전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정현은 올해 메이저 대회에서 호주오픈 2회전, 프랑스오픈 3회전에 올랐으며 워싱턴에서는 부상으로 불참했다. 2015년 US오픈 2회전에 진출한 정현은 지난해 이 대회에는 역시 부상 때문에 출전하지 않았다.

정현은 29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빌리 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단식 1회전에서 오라시오 세바오스(58위·아르헨티나)를 3-1(3-6 7-6(10-8) 6-4 6-3)로 제압했다.

정현은 2012년 세계 랭킹 9위까지 올랐던 선수로 2011년 이 대회 8강이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다. 정현은 이스타와 지난해 한 차례 만나 0-2로 졌다. /연합뉴스

## KIA 100만관중 물건너 가고 도덕성 ‘먹칠’



성적 부진에 원투펀치 등판에도 홈관중 1만명 아래로 폭 구단 ‘직원들 최 전 심판에 송금’ 언론 보도 나간 뒤 해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꿈을 꾸던 KIA였다. 낙담하게 선두 자리를 지키면서 정규시즌 우승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고, 1위 질주에 힘입어 구름 관중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100만 관중’이라는 놀라운 기록까지 세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현재 KIA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현재 KIA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하지만 시즌이 막바지로 접어들어 현재 KIA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는 최 전 심판의 요구를 받고 각각 100만원을 한 차례씩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산의 김승영 대표이사가 최 전 심판에게 3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져 사퇴하는 등 KBO리그는 한 차례 흥역을 치렀다. 이후 KBO가 이에 대해 각 구단으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지만 KIA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29일 송금 사실이 밝혀지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다. 개인적인 진분과 팀에 끼칠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줬다고 해도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야구 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 조항에 어긋난 행위다.

KIA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먼저 사죄하고 이를 바로잡을 기회도 놓쳤다. ‘내부 조사 때 당사자들이 이를 밝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구단측의 설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뒤늦게 확인된 사실을 먼저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도 오점으로 남았다. KIA는 지난주 초 관련 직원이 검찰 소환되는 과정에서 이번 위법 행위를 확인했지만, 29일 언론 보도가 나간 뒤에야 이에 대해 해명을 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KIA는 보도자료를 통해 “불미스러운 일에 KIA 타이거즈 구단이 연루된 데 대해 KIA 타이거즈 팬 여러분은 물론, 프로야구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카락 속어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KIA 타이거즈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앞질러진 물이 됐다. 선수단 안팎의 문제로 KIA는 사상 첫 ‘100만 관중’ 기회도 건어갔다. 답답한 경기가 계속되면서 지난주 홈 두 경기의 평균 관중수가 떨어졌다. 양현종이 출격했던 지난 22일 롯데와의 홈경기의 관중은 8714명에 그치며 8월 들어 처음 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핵터가 등판할 수 없었던 23일 홈경기에는 9789명이 입장했다. 1위 답지 못한 경기력에 도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예매 취소사태가 이어지는 등 KIA를 향한 팬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식었다. 최선이지 못했던 KIA 선수단과 구단의 반성과 뼈를 깎는 변화가 필요하다. /김어울기자 wool@kwangju.co.kr